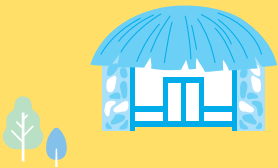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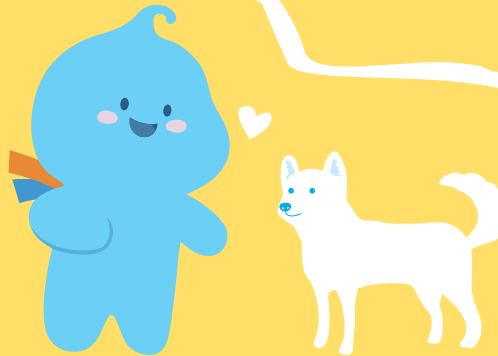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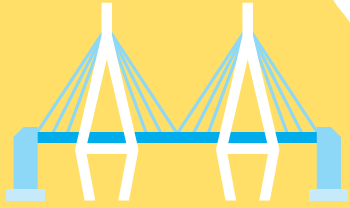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71
2024 FEBRUARY



물,
세계를 연결하다

FLOW

물길 따라 아리아리랑,
보배섬 진도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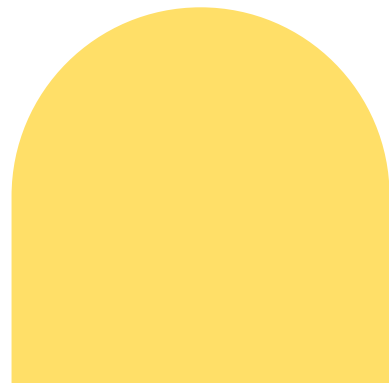
ON

반도체 강국을 만드는
가장 완벽한 물, 초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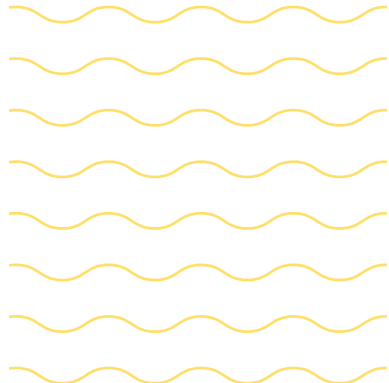
HOPE

녹색수출을 실현하는
K-물산업의 힘

K-water는 국내 물 기업과 손잡고
세계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우리만의 기술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CES 2024



kwater__official



#kwater물산업육성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물산업육성을 검색하고 <#kwater물산업육성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물산업육성을 검색
→ <#kwater물산업육성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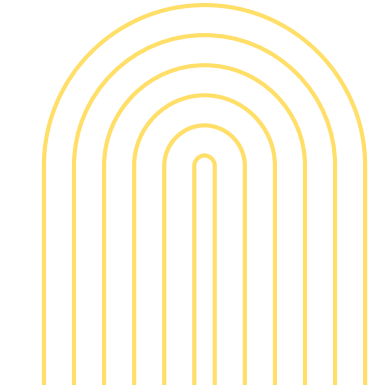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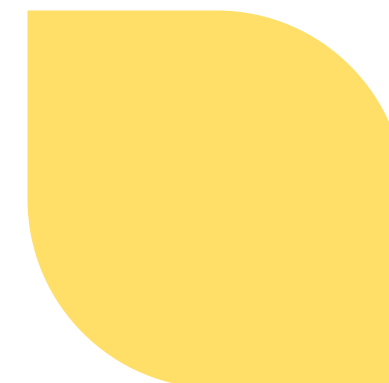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접수 마감일 2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29일경



초순수



독자 참여 안내



마음상담소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건강물음표

물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물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응모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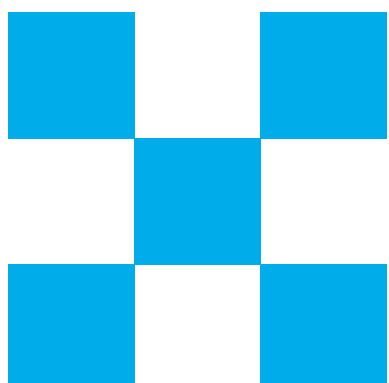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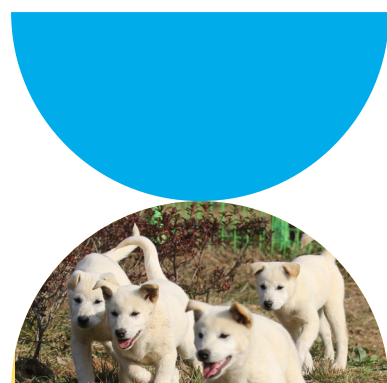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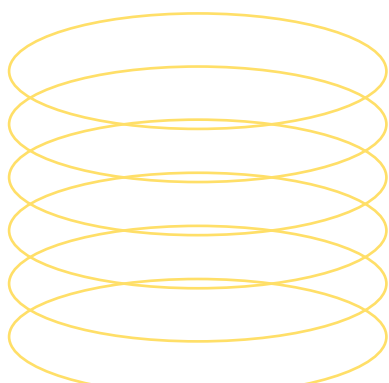
독자의 소리

사보 및 웹진을 읽고 난 뒤 여러분의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후기 및 원하시는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검색창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4 February Vol. 671



COVER STORY

대파와 아리랑의 고향 전라남도 진도. 진도대교를 건너기 전 울돌목에 도착하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리를 반긴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섬 중앙을 흐르는 진도천과 석교천을 만날 수 있다. 물길 따라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도를 소개한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4년 2월 1일
통권 671호 편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FLOW

물과 함께 흐르다 **진도 편**
물길을 따라 만난 삶과 사람,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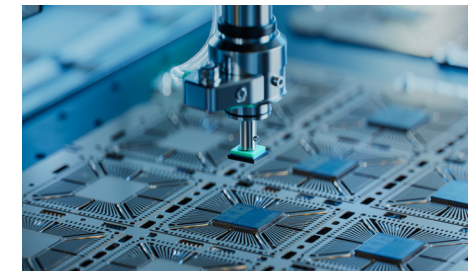


- 10 물길 따라 걷다
물길 따라 아리아리랑,
보배섬 진도여라
- 16 이야기로 물들다
로컬 문화 엿보기
진도개부터 송가인까지
- 18 물처럼 살다
대파버거의 고향에서
만남 물길 곁의 사람들
- 20 수(水)타벅스가 간다
땅끝 섬마을에서 흐르는 행복
진도수도지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ON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든다
반도체 공정의 필수, 초순수



- 26 Insight ON
반도체 강국을 만드는
가장 완벽한 물, 초순수
- 30 ONterview
초순수 국산화를 가능케 하는 힘
진성이엔씨&한성크린텍
- 32 ON the world
첨단산업과 신비로운 자연이
공존하는 대만
- 36 ON전한 지구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할 것,
미리 보는 2024년 기후전망
- 38 ON 챌린지
더욱 뜻깊은 설날 만들기
저탄소 생활 실천 ON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K-water가 실현하는 물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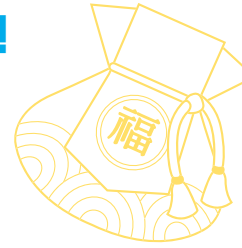
- 40 K-water 리포트
세계가 주목하는
K-물산업
- 44 K-water 포커스 ①
'CES 2024' 참가로
K-물산업 경쟁력을 입증하다
- 46 K-water 포커스 ②
화성시정수장,
글로벌 등대 어워드 수상
- 48 K-water News
- 50 어느 멋진 날
육아원 아이들과 함께한 쿠킹클래스
- 54 마음상담소
- 56 건강물음표
- 57 이슈체크
- 58 문화산책
- 60 릴레이 챌린지
- 62 K-water SNS



2월호 사보와 함께하는

가로 세로 낱말 퀴즈

사보 보고 상품 받고! 설레는 명절 보내세요!



	④			⑤
①				
		⑥		
		③		
②				

가로 퀴즈

- ① K-water의 새로운 비전 '기후위기 대응을 〇〇하는 글로벌 물기업'에서 〇〇에 들어갈 말은?
Hint : 59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② 올해는 용기와 도전을 상징하는 〇〇의 해이다. 푸른색을 띤 용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 ③ 2월호에서 소개한 일월담, 가오슝, 아리산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이 곳의 이름은?

세로 퀴즈

- ④ 2월호 FLOW편에서 소개한 곳으로, 진도개와 대파와 아리랑의 고장 이곳의 이름은?
- 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로, 최근 국산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이것은?
Hint : 26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⑥ K-water 화성시정수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〇〇로 선정되었다. 〇〇에 들어갈 단어는?
Hint : 46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벤트 경품 이슬 핸드크림 2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답 남기기
 접수 마감일 2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29일경



물과 함께 흐르다

땅끝 섬마을 진도의 중심을 관통하는 진도천을 따라
 신비의 바닷길로 이어지는 물길 여행을 소개합니다.

FLOW

물길 따라 아리아리랑, 보배섬 진도여라

시내인가 했더니 어느 순간 개천이고, 이내 강만큼 폭을 넓히더니 불과 10여km 끝에서 바다를 만난다. 진도천은 곧이어 바다가 될 때까지, 진도 소읍과 간척지를 지나며 시나브로 몸집을 불린다. 때로는 일상의 평범한 풍경처럼 흐르고, 일정 구간에서는 간척지 특유의 무늬를 품은 수로처럼 흐른다. 아늑한 산세에서 시작해 작은 물길을 따라 포근한 남도의 바다에 닿기까지, 두 발로 만난 진도의 풍경 속으로.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물길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는 일의 가치

개천이건 강이건 모든 물길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는 한강은 태백의 검룡소에서 발원해 서해에 합수하며 끝나고, 봉화와 예천을 굽이굽이 흐르는 내성천은 백두대간의 선달산 부근에서 발원해 낙동강에 합수한다. 진도천도 마찬가지다. 첨찰산의 지맥인 수리봉(388.5m)에서 발원해 바다 코앞까지 10여km를 흐르다가 해창리 일대에서 석교천에 합수하며 진도천이란 이름 앞에 놓인다. 진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석교천은 진도천을 품으며 더 큰 물길이 되고, 제법 큰 물길인 채로 다도해에 합수한다. 그렇기에 진도천을 걷는다는 건 개천의 한살이를 지켜본다는 뜻이고, 진도천을 따라 산과 바다를 이어 걷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첨찰산(해발 485m)은 이러한 진도천의 한 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정상에 서면 조도군도부터 진도읍내와 해창들을 지나 바다로 이어지는 진도천 물길이 뚜렷하게 보인다. 마치 누군가의 삶을 관통한 시간을 보듯, 산과 숲, 마을과 들을 아우르며 이어지는 물길이 장엄하다. 더욱이 진도천은 간척으로 탄생한 해창들과 소포들을 풍족하게 적시는 진도의 젖줄이다. 내(川)는 그렇게 오랜 시간 농작물을 키워 사람을 이롭게 했고, 동·식물을 키워 자연을 풍성하게 했다. 첨찰산 기슭엔 걸출한 볼거리도 여럿 있어 함께 둘러보



▲한겨울임을 잊게 만드는 윤림산림욕장의 푸르름.

기 좋다. 윤림산방과 쌍계사, 윤림산림욕장이 대표적이다. 윤림산방은 진도의 조선 후기 대가이자 서예가인 소치 허련의 거처이자, 200여 년간 예술의 향기가 끊이지 않았던 남도 화맥인 남종화의 산실이다. 남종화는 건필을 이용한 갈라진 붓놀림과 수묵의 대담한 농담이 특징인 화풍이다. 윤림산방에서는 그런 남종화로 호방하게 그려낸 듯 활달한 풍경에 빠져들 수 있다. 윤림산방과 이웃한 쌍계사와 첨찰산 4분 능선까지 이어지는 윤림산림욕장은 크고 너른 상록수림과 침엽수림을 품은 곳이다. 2월임을 깜빡 잊었다면 봄과 여름 사이쯤이라 착각할 만큼 초록으로 울창하다.

SPOT 1

09:00

첨찰산

진도천 물길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첨찰산 산행은 쌍계사 주차장이 기점이다. 쌍계사~삼선암 약수터~첨찰산 정상~서천암터 삼거리~아리랑비(사천제1저수지)~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원점회귀 코스다.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으로, 첨찰산 9분 능선에 있는 진도기상대까지는 차로도 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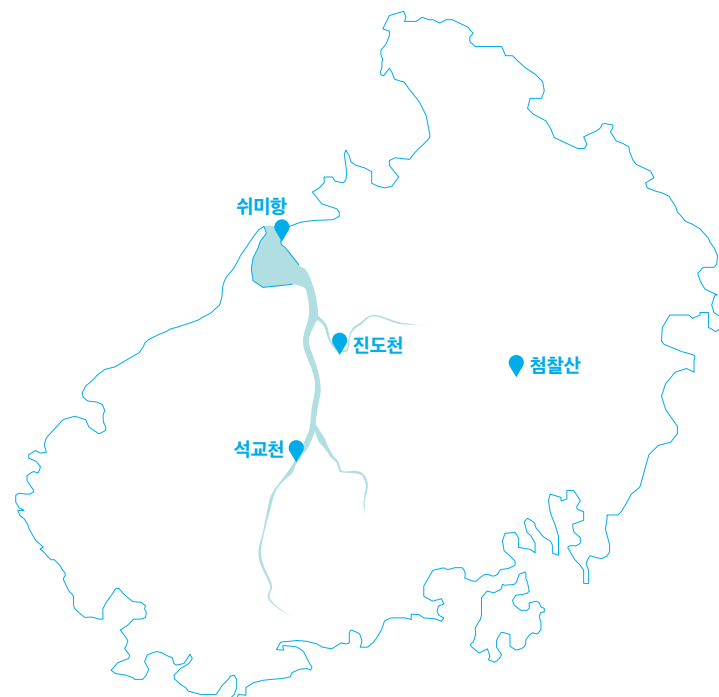
▶진도읍 중심을 가로 지르는 진도천 풍경.

SPOT 2

13:00

진도천

진도 읍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진도천은 드넓은 해창들 사이를 풍경 좋게 흘러, 천천히 산책 삼아 걷기에 좋다.



산과 들, 바다를 잇는 녹지생태축, 진도천

본격적인 물길 여행은 윤림산림욕장 너머에 있는 성죽제부터 시작된다. 성죽제는 수리봉에서 흘러 내려온 개울물이 모여 이룬 저수지로 봄철 농토를 적시는 주요 수원이다. 이곳에서 좁고 얇은 개울을 따라 1.8km가량을 걸으면, 진도 읍내 언저리에 있는 진도향토문화회관에 닿는다. 이곳은 진도 소리의 대중화에 공헌하는 곳 중 하나로, 3월이면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속여행이 열린다. 삶의 애환과 해학을 곁쪽한 육자배기 가락에 실어 전하는 진도의 소리가 '참말로' 차지다. 향토문화회관에서 900m 정도를 더 가면 진도아리랑을 한 소절 배우고 춤도 출 수 있는 진도명품관을 만난다. 이 즈음에서부터 진도천은 몸집을 두 배 이상 불러 수량도 풍성해지고 넓어진다. 깔끔하게 정비된 제방 길을 따라 편히 걷는 것도 여기서부터다. 이른바, 진도천 트레킹의 백미 구간이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가볍게 산책하는 주민들도 더러 있고, 내(川)의 가장자리를 빼곡하게 채운 갈대밭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드넓은 간척지 풍경이 이채롭다. '진도흑미'가 재배되는 들녘은 여름이면 초록으로 넘실댈 것이고,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결칠 것이다.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벼들이 한꺼번에 산들거려 참 장관이겠다. 그렇게 낭만적인 제방 길을 가만히 걷다 보면, 진도천 유로연장의 중간쯤에 있는 옛 소포나루터에 닿는다. 갈대 우거져 물오리들 노닐고, 이따끔씩 물고기 잠방대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 '이곳이 바다였음' 증명하진 못하지만, 진도대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목포-진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이 드나들던 진도 유일의 나루터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16:30

SPOT 3

쉬미항

가사도 행 배를 운항하는 쉬미항은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과 세방낙조 등을 볼 수 있는 진도관광유람선을 탈 수 있는 곳이다. 쉬미항~사자섬~구명섬~발가락섬~손가락섬~불도 등을 1시간 30분 운항한다.

물길 그 끝에서 만난 남도의 바다 풍경

진도는 간척의 역사가 깊은 도시다. 그만큼 재미난 구석도 많다. 진도천을 기준으로 볼 때 해창들 맞은편은 해창들만큼이나 너른 포구리들과 소포들이다. 이 들녘들 가장자리에 도리섬과 건내양섬, 탄양섬이란 이름을 가진 산들이 있다. 지금은 낮은 동산처럼 보이지만 진도천이 소포만일 적 가졌던 '섬'이란 이름이다. 여기에서 간척 전의 진도를 그려보는 시간이 재밌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창들을 끼고 앉은 해창마을에도 마을 앞이 바다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 마을 중간쯤에 있는 해창마을박물관에 가면, 주민들이 쓰던 옛 물건이 가득하고 고깃배를 배경으로 찍은 주민들 사진도 있다. 빛바랜 흑백사진이 전하는 과거의 시간이 상전벽해(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란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지질시대) 진도는 진도를 포함해 상조도, 하조도, 가사도 등 256개 섬들이 모두 이어져 하나의 육지였다.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여러 개 섬으로 분리되었다. 그때쯤엔 해창들에 서면 해무 사이로 작고 작은 섬들이 툭툭히 얼굴을 내밀었겠다. 특히 봄철이면 안개는 더 짙어지는 곳이라 신기루처럼 수백 여개의 섬들이 숨바꼭질을 했을 테다. 진도의 명소 신비의 바닷길처럼 말이다.



◀ 넘실거리는 다도해의 풍경과 낙조가 어우러지는 쉬미항의 모습.



진도의 물길을 따라 만나는
진도 속 명소

▶ 진도타워에서 바라본 울돌목과 울돌목을 가로질러 오가는 케이블카.

수천 년 전 벌어졌을 일들에 대한 감상을 잠시 뒤로 하고, 길은 해창들에서부터 진도천이 석교천과 합수하는 대신산업 앞을 지나 소포방조제까지 내쳐 3km가량을 물길 따라 이어진다. 소포방조제는 소포만 간척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바다는 그 끝에 있다. 드넓은 농토 대신 수십 척의 배가 반기는 쉬미항 그리고 석교천이 바다가 되는 자리다. 마침 해 질 녘이라면 쉬미항 어귀에서 낙조도 감상할 만하다. 다도해의 저도, 소저도, 작도도 같은 섬이 붉게 물들며 징검다리처럼 이어진다. 천에서 시작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내(川)의 한 생을 거닌 하루가 낙조와 함께 물든다. 水



로컬 문화 엿보기

진도개부터 송가인까지



백여 년 전부터 섬을 지켜온 진도개와 현시대를 장악한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흔적이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진도. 진도에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흥미롭게 느껴지는 오랜 이야기와 생생한 시간들이 담겨있다.

글 김영은 사진 진도군청



송가인공원

진돗개와 진도개, 무엇이 다를까?

진도의 진도개는 대한민국의 대표 고유견으로,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진돗개가 전부 다 천연기념물(진도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도군 내에서 심사를 받아 통과한 진도개에 한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원래 표준어로는 된소리 때문에 사이시옷이 붙어 '진돗개'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진도의 고유견으로서 원산지가 진도인 것을 감안해 문화재청이 '진도개'라는 단어를 수용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진도개는 미간이 넓고 주둥이가 날렵하고 길다. 꼬리는 곧게 뻗었다 하여 장대 꼬리라 불린다. 진도개가 평균적인 생김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도가 섬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육지 개들은 전쟁이나 외교 등 다양한 이유로 품종이 섞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도는 고립된 섬이다 보니 비교적 같은 형질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1937년 경성 제국대학 교수인 일본인 학자 모리 다메조 교수는 조선일보를 통해 진도개에 대해 이러한 평을 남겼다.

“사주(飼主, 주인)에 대해서는 비상히 온후(溫厚)하고 독실(篤實)하다고 말하며, 꽤나 친분(親分)한 성질을 지닌 인상이다. 개의 생명선(生命線)인 후각(嗅覺)도 역시 비상하게 발달되어 있고 극히 민감 영리(敏感 伶俐)하다.” 진도 내 진도개는 함부로 섬 밖으로 반출할 수 없고, 개체 수 상황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 와 진도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또 반대로, 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개는 진도군 진도개심사원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혈통 등을 인증받는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혈통이란 게 개들 사이에서야 무엇이 중요하겠나마는, 그 존재로 역사를 가늠하고 신념을 이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진도개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잔디밭 위를 힘차게 뛰어노는 진도개.



진도의 딸, 가수 송가인의 기억을 걷다

최근 진도를 뜨겁게 달군 사람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가수 송가인이다. 송가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출신으로, 판소리를 전공했고 2008년에는 전국판소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가 진도에서 자란 만큼 타고난 소리꾼인 것은 당연한 듯하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은 진도군의 향토문화유산(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로 송가인은 2012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고, 7여 년간의 무명생활 끝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다. 진도의 자라난 가수 송가인의 본가가 있던 앵무리는 송가인마을로 명칭을 변경했고, 송가인 생가, 송가인길, 송가인공원 등 진도 곳곳에는 그녀를 기념하는 관광지로 가득하다. 매주 주말에 목포 또는 진도읍에서 탑승하는 진도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송가인과 관련된 관광지들을 볼 수 있다. *

대파버거의 고향에서 만난 물길 곁의 사람들

고장의 참맛을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이어온 공무원부터 사계절 내내 따뜻한 바람이 부는 섬마을이 좋아 내려온 귀농인까지. 늦은 오후 햇살이 머무는 진도에서, 따스한 마음을 품어내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문수민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오귀석 진도군청
투자유치 팀장



진도 대파, K-버거로 탄생하다

작년,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진행하는 ‘한국의 맛 프로젝트’의 세 번째 버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전라남도 진도의 대파로 만든 ‘대파버거’. 진도는 겨울 대파 전국 재배량의 30~4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로, 한 해 4만 톤 정도 생산된다. 당시 진도군청 기획홍보실 오귀석 팀장은 생산량 대비 낮은 인지도 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대파를 홍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진도 대파를 활용한 간편식부터 시작해 맥도날드와 손을 맞잡고 대파버거까지 출시했다. 대파버거는 150만 개 이상 팔리며 소위 말해 대박이 났다.

“대파버거 출시 이후 대파 크림 과자, 대파 치즈 베이글,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특산품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는 것이 기뻐요.” 현재 오귀석 팀장은 인구정책실로 옮겨 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지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인생2막을 열어준 따뜻한 남쪽 섬

전라남도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고 있다. 가평에서 10년간 양 전원생활을 하던 김미량 씨 또한 2021년 귀농인의 집에 입주했다가 이주해 진도에 거주한 지 3년이 됐다. “내륙 지방에 살 때는 지하수를 사용했거든요. 겨울이면 수증펄프가 자주 고장 나고 언 물을 녹이느라 늘 불편했어요. 진도에 와서는 수도물을 사용하니 불편함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물도 수도물을 마셔요. 게다가 진도는 따뜻해 지내기가 참 좋아요.” 김미량 씨는 자동차를 타고 진도에 처음 왔던 날을 추억했다. 추운 겨울에도 대파와 배추로 가득한 푸른 진도의 풍경. 내륙 중간에 거주할 때는 내내 추웠던 기억이 많았다. 지금은 늦은 오후까지 햇살이 머무는 집에 살고 있다는 김미량 씨. 집을 짓는 동안 머물렀던 귀농인의 집에도 따뜻한 손길과 도움의 추억이 깃들여 있다. 그녀에게 진도는 따뜻한 마중과 햇살로 기억되는 곳일 테다.



귀농인
김미량 씨



조유나 대표



물 맑은 내 고향으로 돌아오다

진도에 태어나 타지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6개월 전에 진도로 돌아왔다는 조유나 대표. 현재는 진도천 근처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물 맑고, 공기 맑은 청정해역 진도라는 말에 공감한다며, 평생 살던 진도를 벗어나서는 물갈이에 시달렸다고 한다. 다시 돌아온 진도에서는 물갈이 없이 잘 지내며 즐겁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를 만들 때에는 수도물을 사용하는데, 섬이다 보니 염분기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수질이 좋아 맛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K-water 진도수도지사 바로 앞 1분 거리에 있어요. 지사 직원분들이 저희 카페 단골이랍니다. 늘 믿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땅끝 섬마을에서 흐르는 행복 진도수도지사

섬마을 진도는 물이 귀했다.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소규모 우물이나 빗물, 불안정한 지하수를 활용해왔다. 그러던 2013년, 진도군민들의 물 걱정이 해소되었다. 진도수도지사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군민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마음 따뜻한 진도수도지사 사람들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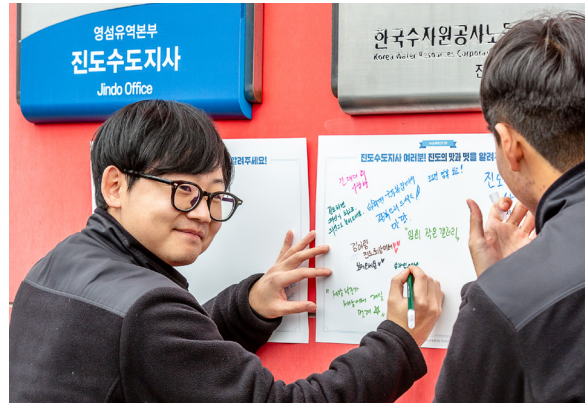
글 김영은 사진 김은주 영상 남건모



진도군민들의 물 걱정을 덜어준 진도수도지사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섬 등에서는 지하수나 우물, 빗물 등 마을 수도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전라남도 진도 또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진도군민들은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까지 마을 지하수를 공동으로 이용했지만, 가뭄 때면 지하수 물이 고갈되어 제한 급수를 실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 2013년 K-water가 진도군과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을 시작했다. 그렇게 진도수도지사(구 진도수도관리단)가 탄생한 것. 진도수도지사는 그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었던 고군면 하울마을에 개인 급수를 설치하고, 2017년에 드디어 상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이어 고군면 하울마을 전체에 수도 계량기를 지원하고 노후되거나 일부 부식된 급수관로를 새롭게 매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도수도지사의 노력으로 K-water가 위수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고객들과 가까이 교류하는 진도수도지사는 고객만족 CS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고객간담회와 워터코디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 수도물 안심 확인제 서비스는 진도군 상수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6년도와 2018년, 2019년도에 이어 2021년, 2022년에도 꾸준히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한 진도수도지사는 앞으로도 진도군과 연계해 상수도 취약계층 병물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쳐 지자체와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예정이다.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보배로운 사람들

2024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1월, 올해 첫 수(水)타벅스 커피차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의 정중앙에 위치한 진도수도지사다. 눈에 확 띄는 노란색 건물에 민트색 커피차가 도착하자 주변이 화사하게 꽃피는 듯 했다. 오늘은 정수장 점검에 나선 직원들과 진도군의 수도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객관리팀 등을 응원하기 위해 수(水)타벅스 커피차가 등장했다. 오늘의 간식은 달콤한 대만식 샌드위치 그리고 각종 커피와 티 종류가 준비되었다. 커피차가 세팅되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하나둘 모이는 진도수도지사 직원들. “여기까지 와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와! 커피차대! 너무 예뻐요!” 등 뜨거운 반응과 함께 휴대전화 사진에 커피차를 담느라 분주하다. 이날 수(水)타벅스를 신청한 고객지원팀 이지안 사원이 직원들의 칭찬 속에 속마음을 전했다. “고객지원팀 직원 모두가 항상 서로 격려하고 돕는 데 진심이에요. 특히 동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려고 애써주죠.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분들을 만나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날 진도수도지사 수(水)타벅스 차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선옥 대리 때문이다. 한선옥 대리는 진도수도지사가 시작된 2013년부터 함께 해온 원년 멤버다. 지난 2020년 12월 정년퇴직했지만 1년 만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재입사했다가, 올해 1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다. 한 대리는 그간 요금 업무 매뉴얼과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 후배들에게 묵묵히 모범을 보인 선배로 남았다. “지원섭섭하네요”라며 간단하게 소회를 밝힌 한선옥 대리. 한 대리의 퇴직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진도수도지사 직원들을 격려하는 수(水)타벅스와 함께한 하루가 겨울임을 잊을 만큼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진도수도지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겠습니다

진도수도지사 고객지원팀 이지안 사원



진도수도지사는 오랫동안 일을 해온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풍부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잘 도와주시고 해요. 특히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 한선옥 대리님은 처음 지사가 생겼을 때부터 업무 매뉴얼을 만들며 기반을 다졌던 분이데, 제가 많이 배우고 의지해왔던 선배님입니다. 이처럼 회사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님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이 탄탄하게 다져놓은 기반을 따라 저희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한파가 올 때마다 고생이 참 많았는데요. 고생한 직원분들과 함께 맛있는 간식과 커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도의 맛과 멋을 알려주세요!

진도 백구마를
 진도라면
 의식이 최고죠.
 의식으로 놀러오세요.

진도 쌀바치
 김아람
 진도최강미터빙
 보리만세용~

진도
 진 : 짜로
 도 : 아합니다~

진도 수리 기사
 자랑합니다!!

진도는 사랑입니다~
 진도 오시면
 대과크림빵 추천!!
 솔비리 드라이브~!

간재미 리 사랑바
 일찍이 고향복합에서
 풍류의 드세요!

진도
 "일히 작은 걸러리,"
 만짱.

진도
 "세방 나쁜가
 세방에서 개인
 멋져☆"

진도
 "금잡리 굴막으로 오세영~
 세방 나쁜가
 세방에서 개인
 멋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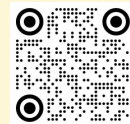
진도
 "일히 작은 걸러리,"
 만짱.

*진도수도지사 직원들이 추천하는 진도의 맛집과 명소를 소개합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들다

세계의 변화가 반도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순수 자립은 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초순수 국산화에 힘쓰는 대한민국 녹색 신산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ON

반도체 강국을 만드는 가장 완벽한 물

초순수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인 초순수. 지금까지는 해외 생산 기술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국산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K-water와 산·학·연 유관기관이 손잡고 초순수 기술 국산화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산업에 왜 초순수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글 편집실 자료 K-water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 초순수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은 인류의 문명 발전 시기를 구분하는 용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문명은 어떤 시대로 불릴까? 혹시 '규석기 시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규석기 시대'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규정한 단어로,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 규소(Silicon)의 앞 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 중 하나다. 반도체는 규석기 시대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 현대문명을 이뤄낸 중요 기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노트북, 냉장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첨단산업에까지 활용되며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와 닿는다. 반도체는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수출 비중의 19.3%를 차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어든 상황이었지

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는 규소와 함께 핵심적인 재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초순수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란, 여러 차례의 수처리 과정을 거쳐 이물질들을 모두 제거한 물이다.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 식각공정에서 사용할 화학물질을 희석하는 데도 활용한다. 일반수는 미생물과 무기질, 유기물 등 여러 물질이 섞여 있고, 전도성을 띠고 있는 이온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제품을 물에 빠뜨리면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반도체 세정 공정에서 아주 작은 불순물이라도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수가 아닌 초순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초순수는 전도성이 없고 완벽에 가까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재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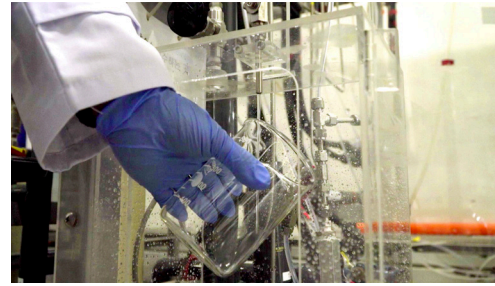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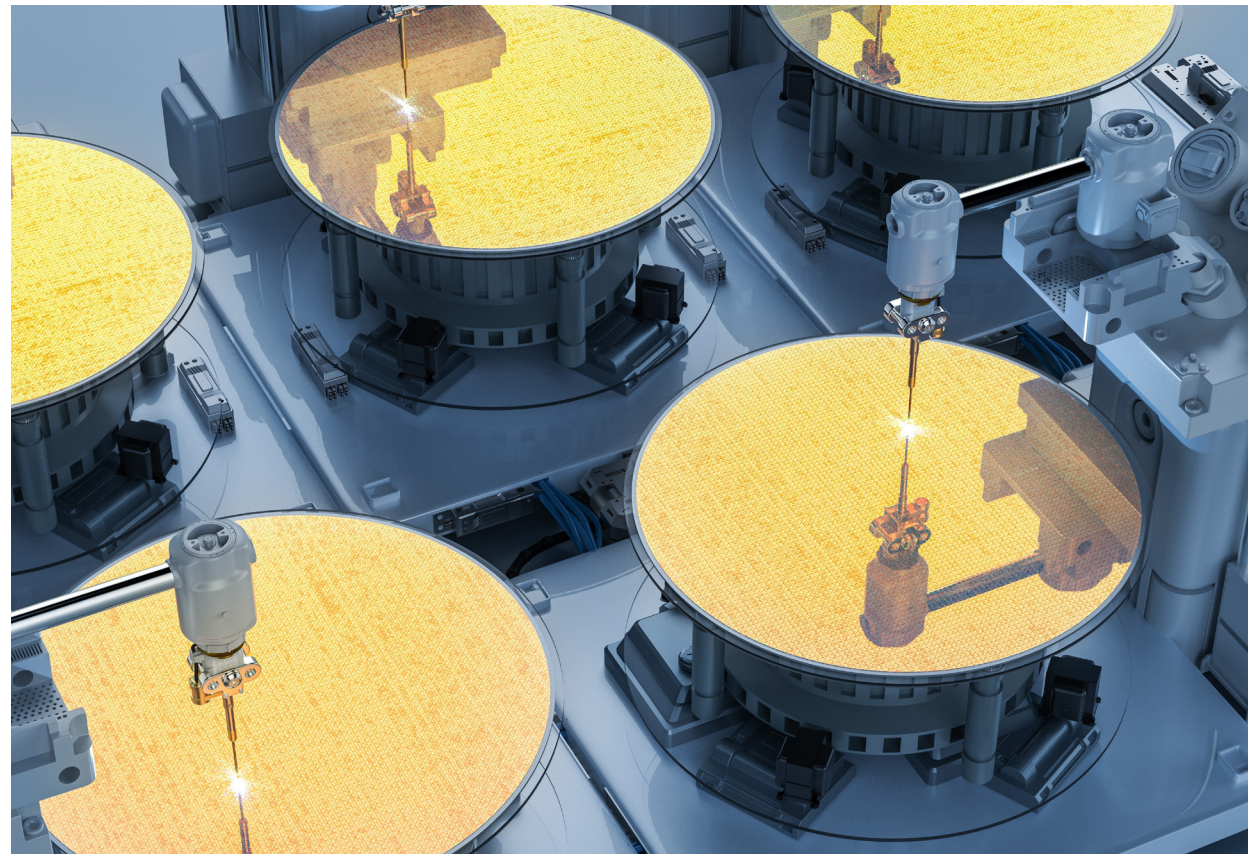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

6인치 웨이퍼 하나를 깎아내는 데 필요한 초순수의 양은 1톤 이상이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초순수지만, 생산 기술은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세계 초순수 기술 특히 부분에서 56%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초순수 시장은 2024년까지 약 23조 원 규모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GWI Water Data 2020 보고서) 그렇기에 국가 주력사업인 반도체 산업의 주권과 경쟁력을 도모하고, 반도체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초순수의 국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초순수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수요기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국내 기술 발전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에 환경부는 2023년에 핵심과제인 3대 녹색신산업 중 하나로 '물'을 선정했다. 그리고 초순수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 기술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초순수 국산화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용수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순수 국산화는 초기 투자 비용 및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정부의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으로 국산화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전문기관인 K-water도 초순수 국산화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K-water는 초순수 국산화 분야의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6월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경북 구미의 SK실트론 내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설치하였으며, 2023년 5월에 1단계 시설 준공에 성공했다. 현재는 하루 1,200톤

의 초순수를 SK실트론 웨이퍼 제조 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곧이어 2024년 6월경부터는 2단계 시설 시운전 및 성능 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 시설이 준공되면 총 2,400톤 규모의 초순수를 직접 생산할 수 있으며, SK실트론 웨이퍼 생산시설에 2단계 국산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초순수를 공급, 웨이퍼 양산에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K-water는 실증플랜트에 디지털 트윈 운영 체계를 개발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및 인공지능이 접목된 초순수 기술 개발은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기술이며, 현재 초순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해외기업의 운영 기술보다도 더욱 고도화된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국산화 기술의 객관적인 성능평가와 인증으로 객관적인 실적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K-water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순수 기술을 확보하고, 초순수 분야의 기술 자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초순수 국산화 추진 계획 및 전략

01	02	03	04	05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증플랜트 부지 선정 및 플랜트 설계	1단계 실증플랜트 구축 및 운영 요소기술 개발	2단계 실증플랜트 구축 및 단위 공정 국산화	디지털 트윈 통합운영 최적화 운영프로그램 구축 및 평가	실증플랜트 성능평가 및 검증, 운영자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출처: 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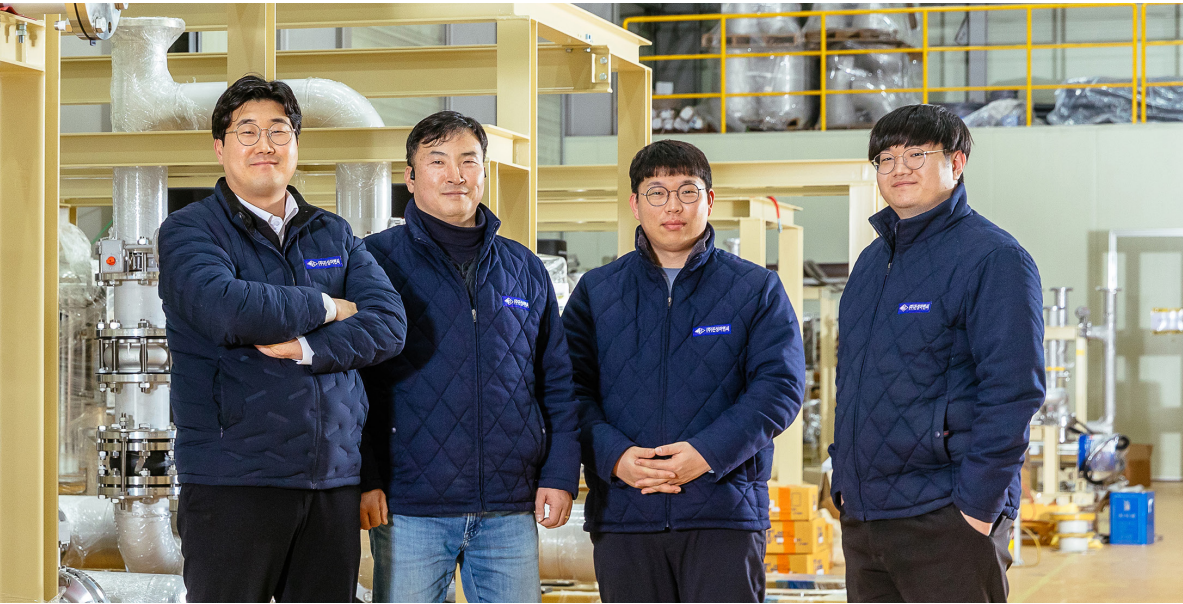
추격형 기술에서 선도형 기술로!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K-water의 역할

초순수 국산화를 가능케 하는 힘

진성이엔씨&한성크린텍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초순수 기술의 국내 개발이 성공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순수 실증플랜트 구축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금, 운영을 맡은 K-water와 협업해 2025년까지 설계·시공에 나선 진성이엔씨와 한성크린텍을 만나봤다.

글 문수민 사진 김은주



(좌측부터)박진수 본부장, 전석환 차장, 황재환 주임, 유해량 주임

진성이엔씨 연구부터 설계, 제작·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증명하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질 검증 수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요즘, 초순수 수처리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생산기술 국산화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 국산화를 위한 R&D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 중에 있다.

진성이엔씨는 K-water가 총괄연구기관으로 맡은 국책 과제인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순도 공업용수 공급배관 설계 및 시공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외에도 평택 고덕, 파주, 구미 등 초순수가 필요한 기업에 현장 시공을 나서고 있다.

진성이엔씨는 기계설비 공사를 주력 분야로 하는 회사다. 수처리용 베셀(Vessel)을 제작해 납품하거나 플랜트 설비 제작 및 현장 설치, 현장 배관 설치 등 수처리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 진성이엔씨는 초순수 수처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 초순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진성이엔씨

한성크린텍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세계 초순수 시장의 진출을 꿈꾸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사건은 초순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규모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초순수 연구 개발 과정은 총 5년 동안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설계·시공·운영하는 것으로, 핵심 단위공정과 실증플랜트의 성능 평가를 통해 초순수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국산화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성크린텍은 K-water와 함께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우선 공급이 필요한 1차 라인(1,200톤/일)을 구축 완료했으며, 수요처 성능 검증 후 실제 공급 및 웨이퍼 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어 현재는 2차 라인(1,200톤/일) 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한성크린텍은 K-water와의 협업 결과 지난해 '환경부 R&D 우수성과 20선 최우수 과제' 및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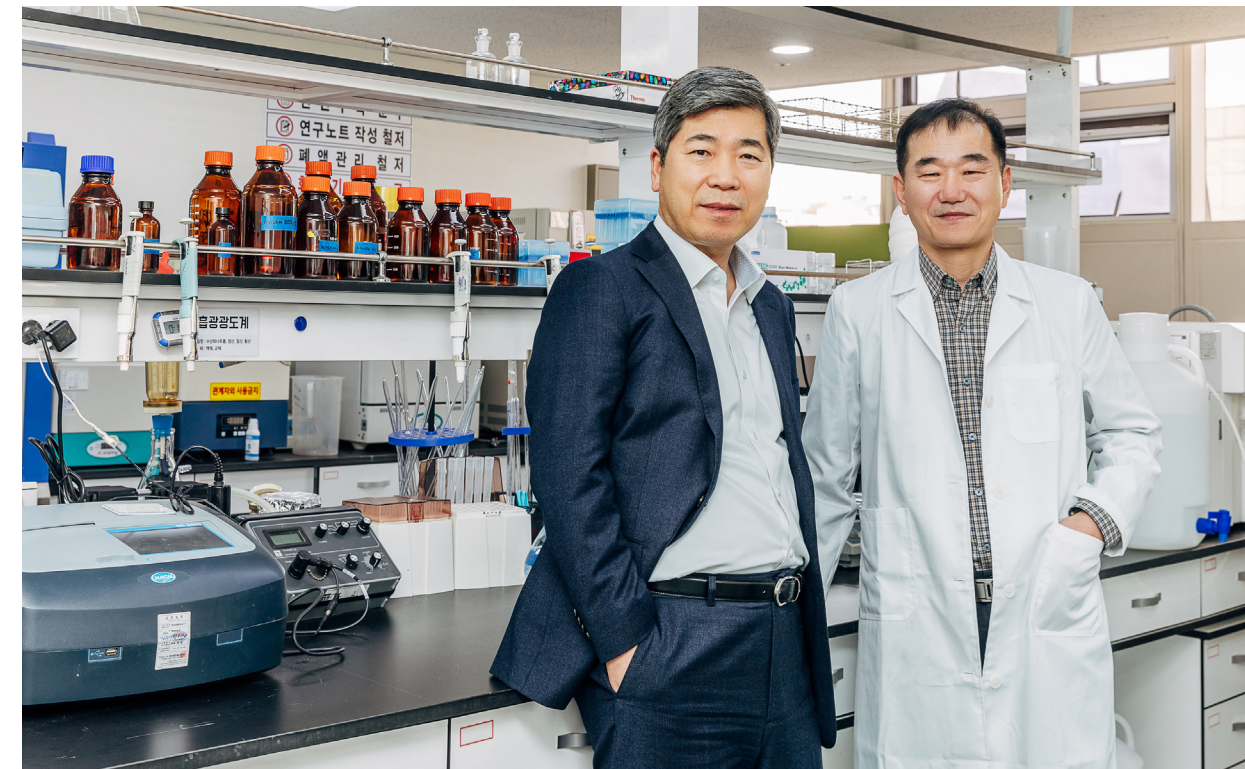
한성크린텍은 1990년 창립 이래, 초순수부터 해수담수화, 순수, 폐수 처리, 재이용 시스템까지 물산업 전반에 필요한 설비의 설계, 구매·제작, 시공 및 시운전 등 환경 토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수처리 기업이다. 한성크린텍은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 23조에 달하는 세계 초순수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1. 우수성과 표창장
2. 초순수 생산라인 전경



한성크린텍 박종운 대표와 길대수 공학박사

한성크린텍



첨단산업과 신비로운 자연이

공존하는 대만

TAIWAN

대만의 자연은 청정 그 자체다. 해발 870m에 자리한 고산 호수 일월담과 운해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펼쳐지는 아리산, 수이리 강을 따라 오가는 낭만 열차 지지선까지. 대만의 풍경은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의 이미지로 여행자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자연풍경과 더불어 풍성한 먹거리가 가득한 대만으로 떠나보자.

글 우지경(여행 작가) 사진 편집실

TSMC의 고장,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생산지역 대만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먹거리로 눈과 입이 즐거운 대만 여행. 관광자원은 대만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다. 또 하나 대만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생산지라는 타이틀이다. 2023년 3분기 기준 점유율 57.9%, Apple 사 발주 23%의 점유율을 가지며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멈추면 세계 반도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대만 내 초순수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에 대만은 반도체의 필수재인 초순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물 보호조치 등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최악의 가뭄으로 반도체 생산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세계 최대 파운드리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대만은 늘 수자원 순환 핵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워터테크 등에 대한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다.



낭만적 매력이 풍기는 천연 호수, 일월담

대만 정중앙에는 대만 최대의 천연 호수인 일월담이 있다. 호수 한가운데의 라루섬을 경계로 동쪽은 해, 서쪽은 초승달 모양을 닮아 해와 달의 호수라는 뜻의 일월담이라 불린다. 일월담의 매력은 푸른 새벽의 운무,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노을빛으로 물드는 저녁까지 시시각각 다른 색으로 빛나는 풍광이다. 호숫가에 현장사, 문무묘 같은 유적지도 많아 경치와 유적을 더불어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다. 일월담을 발견한 샤오족의 전설도 신비롭다. 전설은 이러하다. 샤오족이 사냥을 하며 흰 노루를 쫓았는데 숲속에서 호수가 나타나더니 노루가 갑자기 그 안으로 뛰어 들었다. 이때 발견한 풍부하고 아름다운 호숫가를 하늘이 내린 터전이라 여겼으며 일월담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이다사오, 구족문화촌 등 곳곳에 샤오족의 숨결이 베어져 있다. 자그마치 둘레 35km, 270여 만 평의 호수 여행의 시작은 유람선에서 시작해 케이블카, 산책 순으로 둘러보길 추천한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호숫가 자전거 도로를 맘껏 달려도 좋다.

●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TSMC 출처: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일월담

1 **트립 투 노스탤지아**

지지선

지지선은 1922년 일월담 수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목재 운송을 위해 얼수이역에서 처청역까지 총 29.7km를 개통한 철로다. 과거에는 증기기관차가 수이리 강을 따라 임업으로 번성했던 산촌을 오갔다면, 지금은 알록달록한 완행열차가 얼수이에서 처청까지 목가적인 평화로움이 깃든 작은 마을 사이를 달린다. 지지선이 지나는 마을 중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지지와 처청. 나무로 지은 예쁜 기차역도 보고 녹음이 푸른 마을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바나나 산지로 유명한 지지에서는 천연 바나나 아이스크림, 임업마을 처청에서는 목통밥을 맛보는 재미가 있다.

1 **지지선 처청역**



Where to go?



- 1 가오슝 항구와
- 2 치친섬 야시장의 길거리 음식

2 **바다와 도심이 공존하는 항구도시**

가오슝

가오슝은 화사한 항구도시다. 사랑의 유람선이 떠다니는 아이허의 야경, 항구와 고층빌딩 페리가 어우러진 풍경에 눈이 즐겁다. 시즌에서 페리를 타고 가는 치친섬을 빼놓고는 가오슝을 보았노라 할 수 없다. 근교에는 블록버스터급 불교 유적지 불광산불타기념관과 렌츠탄이 포진해 있다. 또, 비빔 우육면, 샤오롱바오, 휘귀, 밀크티 등 가오슝에서는 다채로운 먹거리에 입이 즐겁다. 치친해산물거리에서는 당일 공수한 가지각색의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치친의 망고빙수와 시즌완의 과일빙수도 빠뜨리면 섭섭하다. 뜨거운 날씨 덕에 달콤함이 남다르기 때문에 해가 지면 메리다오역 근처 류허 야시장으로 가야한다. 대만에서 제일 맛있다는 파파야우유부터 한 잔 맛본 후, 굴전, 화덕 만두 등 샤오츠(대만 야시장 간식)를 하나 둘씩 먹다 보면 입 안 가득 행복이 차오른다.

3 **천년의 신비**

아리산

천년이 넘는 울울창창한 고목들 사이로 백년이 넘는 아리산 산림열차가 달린다. 아리산 산림열차는 인도의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 페루의 안데스 철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산악열차다. 기차는 숲속을 달리는 선무행과 일출을 보러가는 주산행 두 가지다. 자오펑역에서 시작되는 아리산 트레킹은 산에 오르다기보다 숲에 스며드는 느낌이다. 노송나무와 삼나무가 뽀뽀한 숲길은 영화 속 한장면을 닮았다. 숲 사이로 떨어지는 한 가닥 빛줄기마저 그윽하다. 웅장한 나무 사이 아담한 연못가는 쉬어가기 좋다. 코끼리코나무, 두 그루의 사이프러스가 만든 하트나무 등 요리조리 눈길 줄 곳이 많다. 일출을 보기 위해 주산행 열차를 타면 운해 사이로 떠오르는 주산의 장엄한 일출을 보는 행운을 차지할 수도 있다. 水

1 **아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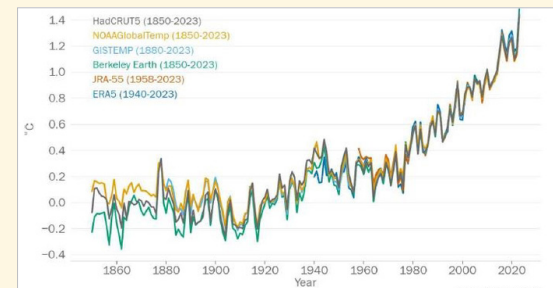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할 것, 미리 보는 2024년 기후전망

글 권원태(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

지난해 지구평균기온은 14.98도로 관측 사상 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산업시대 이전(1850-1900년 기준)에 비해 1.45도가 상승했죠. (세계기상기구, 2024) 이는 2위를 기록한 2016년보다 0.15도 더 높은 값입니다. 관측자료가 있는 1850년 이후, 174년 동안 지구평균기온의 1~10위는 모두 지난 10년(2014~2023년)에 나타났을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여름 이후,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엘니뇨로 인해 기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인위적 온실효과의 75%를 차지)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50% 증가하여 2024년에는 420ppm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3백만 년 동안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에도 인간활동으로 인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0.9%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위적인 온실효과의 약 18%를 차지하는 메탄은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분간 온실가스 농도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위적 온실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50-2023년 지구평균기온 변화
(단위: °C; 6개 데이터 사용, 기준: 1850-1900년 평균)
출처: WMO, WMO confirms that 2023 smashes global temperature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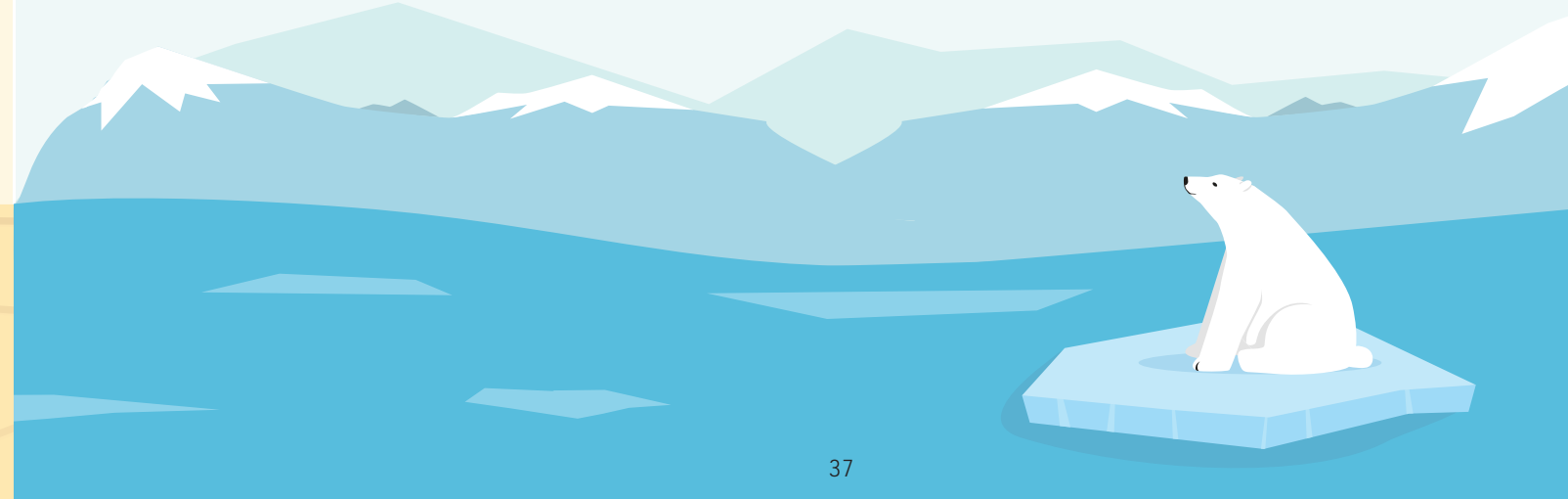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면 지구평균기온은 197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온난화 추세를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원인으로 인한 변동성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온도가 주변에 비해 더 높아지고, 라니냐가 발생한 해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위를 기록한 2016년에도 엘니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름까지 동태평양에서는 강한 엘니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지구평균기온은 최고 5순위 이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는 온난화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극한 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지구 곳곳에서 강풍과 홍수, 산불, 고온현상, 가뭄 등이 기록되었는데, 극한 현상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패턴이 변합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폭염은 4배로 증가하지만, 1.5도 상승에는 9배, 2도는 1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우는 1도에 30%, 1.5도에는 50%, 2도에는 70%가 증가할 것이며, 가뭄은 1도에 1.7배, 1.5도에 2배, 2도에는 2.4배로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극한 현상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 부족, 건강 악영향, 사회 인프라 파괴, 생물종 멸종 및 생태계 훼손 등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수해가 빈발하고, 여름에는 폭염, 봄에는 가뭄과 산불 등 끊임없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현상은 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 증가되며, 2024년에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한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극한 현상예경보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파리기후협정과 추후 국제기후협상을 통해서도 아직 온실가스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구평균기온이 2030년대에는 1.5도 온난화로 진입하고 더 미래에는 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한 현상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기후를 기준으로 사회 인프라를 설계 또는 유지하는 것은 미래 기후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래 기후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즉, 기후변화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록을 경신했다'는 뉴스조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기록은 계속 경신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현상이 발생하거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는 우리 주변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발굴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현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노력은 지금 당장 사회경제와 자연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려는 마음가짐과 후손에게 기후청구서를 떠넘기지 않겠다는 각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水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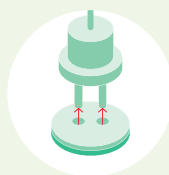
더욱 뜻깊은 설날 만들기

저탄소 생활 실천 ON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보다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저탄소 생활실천법을 소개합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꾸준히 저탄소 생활 실천을 이어 나가 보세요!

글 전해정



1

집을 비울 때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아두기



2

귀성길, 귀갓길에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낮추기

TIP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경로 미리 파악하기, 가속페달 밟지 않기 등을 실천해 유류비를 절감



3

명절 선물을 보자기 등으로 친환경 포장해 과대포장 줄이기



4

성묘를 가거나 차례를 지낼 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줄이기



5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기

오늘의 도전이 습관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 ON

위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저탄소 생활 실천을 지속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61페이지의 토퍼를 이용한 실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2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29일경



CHAPTER 3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물산업 육성으로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 기후위기 극복과 물복지를 실현하는 K-water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세요.

HOPE

세계가 주목하는 K-물산업

녹색신산업의 육성과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K-water가 발 벗고 나선다.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사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녹색신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K-water의 다양한 노력에 귀기울여 본다.

글 편집실 자료 K-water



K-물산업을 견인하는 K-water

최근 지속된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또한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물산업 등으로 구성된 3대 녹색신산업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물산업에는 수상태양광, 그린수소, 상수도·하수도·해수담수화 기술의 스마트화 및 초순수 기술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전문기관인 K-water는 정부 정책에 맞춰 물산업 민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산업 기반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K-water의 목표다.

K-water는 지난 2018년부터 물 관련 혁신 스타트업 439개를 발굴하고 멘토링·기술실증·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기기업으로는 최초의 시도로서, 물 산업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혁신 기술 사업화부터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 자금 조달, 국내외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전 주기 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6천 8백억 원의 매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2025년까지 4천 6백억 원 이상의 물산업 특화 지역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성장지원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산업 환경변화 및 확대에 따른 혁신기술 개발, 제품 국산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물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물산업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한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디지털 워터플랫폼(wateRound)*을 통해 물 관련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있는 것.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 지원과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거래를 실현하는 등 참여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하며 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물 문제 혁신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 및 서비스할 수 있는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www.wateround.kr)



K-water 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스타트업 발굴 : 439개
매출 : 약 6천 8백억 원
펀드조성 : 4천 6백 억원 이상(~2025년)



**세계를 개척하는 물 산업,
녹색수출의 교두보**

K-water는 그간 펼쳐온 해외사업, ODA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필리핀 환경자원부 ODA 사업, 마닐라 ADB(아시아 개발은행)와 MOU 체결, 카자흐스탄 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통한 K-테스트베드 해외실증지원 사업 추진 등이 바로 그것. 이러한 협력체계를 활용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K-water는 2018년부터 물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K-water 해외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탄자니아에 IBS 지원 사업, 태국으로의 동반 진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23년 4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과 사우디 등 15개국 19건의 전시·상담회, 무역사절단, 기술로드쇼 등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녹색수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

한편 K-water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CES 2024'에 참석했다. CES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활성화와 각종 스타트업 기업들의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채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에 K-water는 육성 중인 스타트업 중 혁신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19개사와 동반 참가했다. 육성 중인 스타트업이 CES 2024를 통해 해외 진출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K-water의 물산업 육성 노력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뿐만 아니라 탄소무역장벽 극복, 해외 랜드마크 사업참여 등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성장 동력으로 물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CES 2024 K-water 전시관에 방문한 외국인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3GWh

용담다목적댐 수력발전

용담다목적댐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연간 13GWh의 재생에너지를 네이버(주)에 직접 공급하는 PPA 체결



용담다목적댐 수력발전

**삼성과 네이버와 맞손,
녹색 무역장벽 함께 넘는 K-water**

K-water는 직접적인 녹색 수출기업 육성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유럽발 녹색보호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선진국과 글로벌 RE100 기업의 녹색 무역장벽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K-water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물전문 기관인 만큼 자사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기업이 직면한 무역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water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해 공급하는 '녹색무역장벽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용담다목적댐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연간 13GWh의 재생에너지를 네이버(주)에 직접 공급하는 PPA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네이버(주)의 본사 사옥 운영 전력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매년 온실가스 약 6,000톤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K-water의 인프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국내 수출 기업들은 녹색 무역장벽 해소는 물론 탄소중립 친환경 기업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와 녹색무역장벽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FOCUS 1

초격차 향한 힘찬 발걸음! 'CES 2024' 참가로 K-물산업 경쟁력을 입증하다

K-water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에 참여해 K-물산업을 알리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물분야 혁신기업의 입지를 다졌다.


글 김영은 자료 K-water

세계 혁신 기술이 모이는 CES에서 K-물산업을 알리다

K-water가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에 참가했다. CES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로, 1967년 뉴욕에서 처음 선보였다. 처음에는 대부분 가전 제품을 전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세계의 ICT 제품과 기술, AI 관련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년 150여 개국에서 4천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CES 2024에는 인텔,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했는데, 특별히 반도체 기업의 참여가 늘었다.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인 초순수 국산화에 힘쓰고 있는 K-water도 적극 참여했다. K-water는 작년보다 이은 두 번째 참여다. CES 2024 유레카관에 232㎡ 규모의 K-water관을 운영했으며, 이곳에서 물산업의 K-브랜드를 소개했다. '물·에너지·도시'를 테마로 물이 인공지능 및 디지털 트윈, 수전해 등 연관 기술과 만나 사회적 난제를 극복할 다양한 혁신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K-물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기술 혁신상 쾌거, 물산업 육성 플랫폼으로 성공

K-water는 이번 CES 2024를 통해 '물·에너지·도시' 각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관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녹색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 혁신상을 인정받은 물기업 19개사와 함께 참여했다. 나흘간 이어진 일정 동안, 다수의 글로벌 바이어·투자자·엑셀러레이터 및 대학 등이 K-water관을 방문했으며, 총 630여 건의 상담이 오가고 35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및 16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CES 2024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헬스·스마트시티·로봇공학 등 모두 28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에 K-water와 함께 참여한 협력기업 중 AI·데이터 기반으로 수면을 이동하며 수질 측정 및 녹조를 제거하는 로봇 기술(에코피스) 등 6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수행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윤석대 사장은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핵심 기술의 육성과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CES 2024 참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수출을 견인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뜻을 밝혔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수면을 이동하며 수질 측정 및 녹조를 제거하는 '에코피스'의 무인 녹조 제거 시스템. 출처: 에코피스

#ECO BOT
AI(인공지능) 수질정화 로봇



특징: 실시간 수질 분석, 녹조 발생 예측, 무인 녹조 제거 시스템, 녹조 필터링 제거 기술

SPECIFICATION: 길이 4,500 mm, 폭 4,500 mm, 높이 1,200 mm, 처리량 230 ton/day 이상






화성AI정수장, 글로벌 등대 어워드 수상

현지 시각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K-water가 운영하는 화성AI정수장이 물기업 세계 최초로 '글로벌 등대 어워드(Global Lighthouse Network Award)'를 수상했다.

글 편집실 자료 K-water



물관리 분야 세계 최초 선정, 미래 선도기술로 인정

화성AI정수장이 수상한 '글로벌 등대 어워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위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와 2018년 공동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그간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 지멘스(SIEMENS) 등 해외 유명기업이 주로 선정되었고 국내 선정기업은 포스코, LS산전, LG전자 등 단 3개뿐이었다. 글로벌 등대로 선정된 화성AI정수장 사례는 전 세계 물관리 시설 중 최초로 선정된 것이자 공공 물 서비스 분야의 최초 선정사례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은 화성AI정수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변동성에 대비해 AI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자율 운영, 에너지관리, 설비상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자율진단, 지능형 영상감시 등이 융합된 차세대 기술 적용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개발

급격한 기후변화 속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수돗물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시기후에 따른 물관리 여건 변화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설비를 운영하고 휴먼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K-water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화성정수장에 AI 기반 운영체계 도입을 시도하였고, 2022년 4월 성공적으로 준공을 완료했다. 또한 이와 같은 AI 기반의 정수장 기술을 올해까지 전국 42개 광역정수장에 확대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완전 자율 운영을 목표로 AI정수장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water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AI정수장 기술을 발전시켜 ISO 국제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유관 강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水

화성AI정수장 조감도



1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실행 본격화

K-water는 사업 및 경영 전반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는 전략 실행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석대 사장은 “빈틈없는 물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기업과 지역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 ‘새로운 물의 리더십’ 다짐

‘새로운 물의 시대’를 이끌어 갈 K-water 신임 부서장 교육이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윤석대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명한 33명의 신임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新 경영 비전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마음가짐 등을 공유했다. 주요 행사로 임명장 수여식과 CEO와의 소통이 진행됐으며, 부서장에 필요한 리더십, 공정한 K-water를 위한 역할, 품격있는 리더의 이미지와 스피치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3



물 관련 혁신기술 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체결

K-water는 지난 1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국내외 민간기업(주)부강테크, Capture 6)과 물 관련 혁신기술 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 부족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인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의 파일럿 플랜트를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바닷물의 담수화 이후 남겨진 고염분의 배출수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해수담수 배출수 재처리 기술의 실·검증 지원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4



세계 최고 수준 수자원위성 개발 위해 독일과 협력

K-water는 지난 1월 24일, 독일항공우주청과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수자원위성 영상레이더 품질 최적화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water는 수자원위성 감보정 핵심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착수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레이더 품질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 등 고도화된 기술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이에 2025년에 발사될 중형급 수자원위성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수자원위성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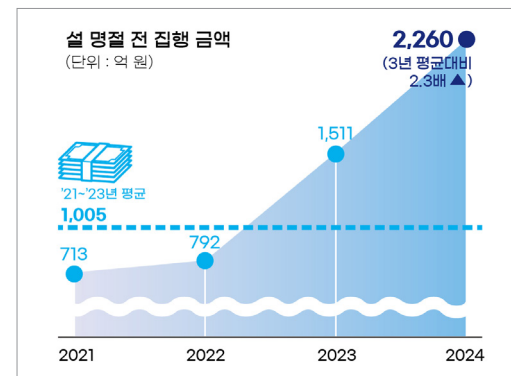
5



우크라이나 호로독시(市) 도시개발·물관리시설 재건 참여

지난 1월 24일, K-water는 우크라이나 르비우주(州) 및 호로독시(市)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 11월 우크라이나 부차시(市)에 이은 두 번째 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 개발과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관련 지식 및 노하우 공유 등이다. 앞으로도 K-water는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녹색수출 견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6



설 명절 맞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조기 집행

K-water는 정부의 민생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설 명절 전까지 2,26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번 집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집행액 대비 2.3배, 1,25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계약 선금 보증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대신 납부하여 계약상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육아원 아이들과 함께한

쿠킹 클래스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 동광육아원 아이들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최정호 부장, 강성현 대리, 김오중 부장, 장용해 차장, 김은지 대리, 정예원 차장, 김양은 대리



종종 김해에 위치한 동광 육아원에 방문하며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왔다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장용해 차장. 몸과 마음이 푹푹 얼 듯한 추위를 이겨내고, 이날만큼은 장용해 차장 혼자가 아닌,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식구들이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케이크와 딸기라테를 만드는 쿠킹클래스가 열린 것. 용기종기 모인 식탁에서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글 문수민 사진 김은주

더 값진, 갑진년을 위한 특별한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다.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고, 새해 다짐을 담은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공사부 장용해 차장은 그간 얼굴을 비쳤던 동광 육아원의 아이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용기와 도전을 상징한다는 '청룡'의 해를 맞아 아이들이 컵케이크와 딸기라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쿠킹클래스를 준비한 것

장용해 차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이곳에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던 것이 오늘날의 정기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장용해 차장이 개인적으로 방문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식구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의미 있는 일은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되는 법이니까 말이다. 이번 쿠킹클래스에 함께한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들은 공사부의 최정호 부장, 강성현 대리, 경영보상부의 김오중 부장, 정예원 차장, 김양은 대리, 그리고 경관생태부의 김은지 대리다.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저 일상처럼 저에게 익숙한 일이 되었어요. 저 스스로 특별한 일을 한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장용해 차장은 자신이 베푸는 마음가짐보다 그저 아이들이 밝고 예쁘게 자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을 전했다.

육아원에 도착하자 건물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장용해 차장은 새해를 맞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담긴 선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멋진 날' 코너를 신청한 것.

"평소에 혼자 방문할 때는 음식을 사 와서 아이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쿠킹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네요. 종종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선물해 주고 싶었는데, 마침 '어느 멋진 날'이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멋진 날을 선물하게 된 것 같아요!"






고사리 손으로 만든 달콤한 추억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둘러싸이고, 그 위로 쿠키 재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는다. 비로소 클래스 준비가 완료됐다. 이번 클래스는 출장 전문 체험학습플랫폼 아자스쿨에서 발 벗고 나서 주었다. 컵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시트와 생크림, 컵 옆으로는 귀여운 용 모양의 쿠키도 눈에 띈다. 컵케이크가 완성되면 그 위로 가지각색으로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다. 클래스 준비가 완료되자 저마다 깨끗이 손을 씻은 아이들이 부엌으로 모여들었다. 분주한 발걸음과 떠들썩한 웃음소리, 아이들의 얼굴에는 색다른 재미를 향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익숙한 듯 아이들이 제 자리를 찾아와, 클래스 강사가 쿠키클래스의 포문을 열었다.

“미리 준비된 시트를 컵 모양에 맞게 자르고, 그 위로 달콤한 생크림을 듬뿍 얹으면 돼요.” 강사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은 하나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생크림을 짜 얹는다. 종알종알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신만의 개성으로 청룡 케이크 시트 위를 꾸미자 금세 케이크가 모양새를 갖췄다. 진행에 따라 다음 스텝은 딸기라테 만들기로 접어들었다.

라테에 들어갈 딸기를 잘게 썰는 것부터 조심스레 시작된 두 번째 클래스. 직접 썬 딸기를 우유와 함께 병에 넣고 다른 재료들과 섞어주면 나만의 딸기라테가 완성된다. 칼질이 어려운 아이들은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들의 도움으로 저마다 딸기라테를 만들어 나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밀조밀 만든 컵케이크이지만 그 마음만은 전문 파티시에에 뒤지지 않는다.

컵케이크와 딸기라테 만들기가 끝날 때쯤, 강사가 깜짝 선 물이라며 용의 해를 맞이한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꺼냈다. 바로 용 모양 종이 인형 만들기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자신만의 용을 만들어 본다. 다양각색의 사인펜 중 나만의 용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색을 신중하게 고르고, 비늘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칠하는 아이들의 손길이 사랑스럽기만 하다. 달콤한 컵케이크와 딸기라테처럼 오늘의 ‘어느 멋진 날’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달콤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본다. 



오늘 육아원에서 함께한 쿠키클래스, 어떠셨나요?



장용해 차장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아이들과 다시 또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잠시나마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컵케이크, 딸기라테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김양은 대리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기분 좋아하고 신나 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 정화된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짧게나마 서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은지 대리

다 같이 모여서 쿠키클래스를 진행하는 기회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소중한 기회에 함께할 수 있음이 감사했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호 부장

그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멋진 날’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든 명절 증후군,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긴 연휴가 반가운 이들이 있는 반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대다수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증상부터 화가 치밀고 신경질이 나는 심리적 반응까지, 그 증상도 다양하다.

글 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명절만 다가오면 즐겁기보다는 마음에 부담이 먼저 와요. 종일 집안일을 해야 하거나 잘 모르는 어른들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스리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다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등 몸에도 신호가 오더라고요. 민족 최대의 명절을 어떻게 하면 서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명절 증후군은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생기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문화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두통, 복통, 소화불량과 함께 자꾸 화가 치밀면서 신경질이 나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을 호소한다. 명절 증후군은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이면서 전통적인 관습과 현대적인 사회생활이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관련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평소에는 핵가족화 되어 지내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명절을 맞아 갑작스레 공동 가족군으로 합쳐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명절 연휴기간에 친척들을 만나기보다 국내 혹은 해외에 여행을 가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연휴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서 몸이 무겁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럼 명절 연휴기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가급적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피한다.

또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갑작스레 많은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발생하는 번잡함이나 과도한 일거리로 과중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 바로 명절 증후군이다. 평소 각자의 이면에 감춰 있던 불편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건드러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취업, 결혼, 출산에 대한 조언은 당사자에게는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 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예의와 배려가 부족할 경우, 결국에는 기분 나쁜 언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특정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가사 노동을 되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분담해야 한다.

특정 누군가에게 가사의 부담이 편중될 경우 불만은 당연히 커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현재 세대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마찰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마련이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경직된 생각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상황을 적용해보자. 이는 곧 서운함이나 실망감을 줄여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해준다. 또한 명절과 관련한 경비 부담을 서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력적, 심리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도가 초과될 수 있다.

세 번째, 평소의 생활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한다.

고향이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 이동 시간이 길어지거나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체력이 고갈되고 평소의 생활리듬이 깨지게 된다. 특히 연휴가 끝난 후 하루라도 휴식하지 못하고, 곧바로 출근해야 한다면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후 일주일 동안은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 컨디션으로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Counselor. 오미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레지던트 수료,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교수 및 임상심리 수련감독자 역임 등을 거쳐 현재 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아이 설명서> 등이 있다.

Q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찌까?

A

입버릇처럼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다. 몸무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근육과 뼈, 피부, 수분 등이다. 특히 수분은 몸속 혈액, 근육, 뼈 등 모든 장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은 0칼로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체지방이 늘지 않는다. 배 속 가득 물을 채운다 해도 몸은 필요한 양만 저장하고 나머지를 모두 배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실 경우 노폐물 배출, 혈액 순환 등에 도움이 되어 콜레스테롤과 혈관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

혹시 물을 많이 마셨더니 살이 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평소 음식을 짜게 섭취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몸속 구석구석에 남은 소금이 물과 합쳐져 몸이 붓거나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갈증과 허기를 느끼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자극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적절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 *

참고

1. 헬스조선 '물만 마셔도 살 찐다는 사람, 정말 그럴까?'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물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물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응모해 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인 가구의 새로운 명절 트렌드

2023년 기준 1인 가구 통계는 전체 가구의 34.5%로, 총 750만 2천 가구를 기록했다. '명절 해방' 키워드로 통하는 1인 가구의 새로운 명절 트렌드를 소개한다.

글 전해정



가족모임 대신 여행



저탄소 식품 선물하기



나를 위한 선물 구입

이제는 열 가구 중 세 가구가량이 1인 가구에 속할 만큼 1인 가구의 수가 날로 늘고 있다. 늘어가는 1인 가구 트렌드에 맞춰 명절 트렌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먼저, '명절 해방'이라는 키워드의 발견이다. 명절이면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한다. 긴 연휴를 활용해 개인의 여가 시간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미코노미(Me+Economy) 트렌드의 영향이기도 하다. 미코노미란, 개인주의가 반영된 소비를 통해 본인의 개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공유하는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명절은 가족 모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여행, 호캉스, 선물 등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코노미와 비슷한 개념으로 미닝아웃(Meaning Out)이 동시에 떠오르

면서 이는 1인 가구의 명절 선물 소비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미닝아웃이란, 소신대로 소비한다는 뜻을 지닌 신조어 중 하나.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미코노미 현상이 유행하면서 자신의 신념이 반영된 소비 트렌드로 미닝아웃이 자리 잡은 것이다. 개인의 가치와 신념, 취향이 반영된 소비 패턴이 적용된 선물이 사랑받게 된 것.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친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농법으로 생산한 농수산물 선물이나 친환경 패키지 선물 등이 인기다. 실제로 L 백화점에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 업계 최초로 저탄소 한우 선물 세트를 선보였는데, 완판을 해 주목을 받았다. 호캉스나 여행에 이어 소형 가전제품 등 자신을 위한 선물의 판매량이 늘면서 자기신념을 만족하는 셀프 선물이 새로운 명절 선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



설에 놀면 뭐 하니? 영화나 볼까?

긴 연휴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만한 취미로 영화만 한 게 없다.
즐거운 연휴를 만들어줄 가족 영화와 함께 올해 신작 개봉 리스트를 함께 소개한다.

글 전하영

분주했던 일상을 벗어나 나른한 오후가 이어지는 긴 연휴, 민족대명절 설이 다가왔다. 지금과는 달리 어렸을 때는 별일 없이 길게만 느껴졌던 연휴. TV 속 '설날특선영화'가 지루함을 달래 주었던 기억이 어렵잖아. 이번 설에는 무슨 영화가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리모컨을 손에 쥐고 연휴 내내 가족과 영화를 봤던 추억이 새록새록 하다. 요즘은 OTT를 통해 마음껏 골라볼 수 있으니, 긴 연휴도 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가족,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영화를 찾는다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디즈니 픽사의 작품을 소개한다. 바로 <엘리멘탈>이다. 작년 여름에 개봉한 작품으로 불, 물, 공기, 흙 4개의 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탈 시티'의 이야기를 담았다. 완전히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통해 특별한 우정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교훈적인 면은 물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영화관을 선호한다면 현재 상영 중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창립 100주년 기념작 <위시>도 함께 볼 만하다. 디즈니 특유의 화려한 영상미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는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탁월할 것. 다소 오래된 작품이지만 2010에 개봉한 한국 영화 <헬로우 고스트>도 추천한다. 차태현 주연의 가족 코미디 영화로, 처음에는 뻔한 코미디물인 것 같지만 끝으로 진행될수록 엄청난 반전이 있으니 기대할 것. 눈물 콧물 배꼽 모두 쏙 빠지는 가족영화로 함께 가볍게 즐기길 좋다.

올해 설에는 어떤 영화가 개봉할까?



도그데이즈(Dog Days)
감독 | 김덕민 개봉 | 2월 7일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영화가 개봉한다. 영화 <도그데이즈>는 성공했지만 까칠한 성격의 건축가와 MZ 라이더, 영끌 건물주, 싱글 남녀와 초보 엄빠까지 각양각색의 매력의 지닌 캐릭터들이 반려견과 함께 지내며 한층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각 배우들과 짝을 이룬 다양한 강아지들의 얼굴과 연기가 영화에 즐거움을 더하니 눈여겨 볼 것!



밥 말리: 원 러브(Bob Marley: One Love)
감독 | 레이날도 마르쿠스 그린 개봉 | 2월 개봉 예정

자메이카 출신의 음악가로 레게 장르 음악을 전 세계로 확대한 역대 최고의 레게 스타로 꼽히는 레게음악의 거장, 밥 말리의 생애가 영화를 통해 선보인다. 가히 혁명에 가까웠던 음악,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시대의 아이콘 밥 말리가 선사하는 무대와 뜨거웠던 그의 삶을 조명한다. 제목의 '밥 말리: 원 러브'는 밥 말리의 대표곡에서 따왔으며, 'No Woman, No Cry', 'Three Little Birds' 등의 명곡이 있으니 영화를 보고난 후 음악 감상에 빠져보자.



아가일(Argyle)
감독 | 매튜 본 개봉 | 2월 7일

영화 <킹스맨>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 매튜 본의 여덟 번째 장편 영화인 영화 <아가일>. 영화 <킹스맨>처럼 3부작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며, 두아 리파 외에도 헨리 카빌, 새뮤얼 L. 잭슨 등이 출연한다. 영화와 함께 동명의 소설도 출간된다고 하니, 영화를 보기 전이나 후에 책을 함께 읽어보면 더욱 풍성한 감상으로 남을 듯하다. ✨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이○지 010-****-8342



이○은 010-****-8933



김○정 010-****-6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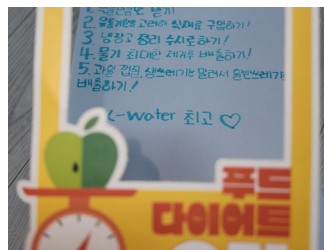
김세○ 010-****-2099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1월호 '푸드 다이어트 ON'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2월호 '저탄소 생활 실천 ON'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양파 껍질 재활용
- #먹을 만큼만 덜어 먹기
- #음식을 쓰레기 남기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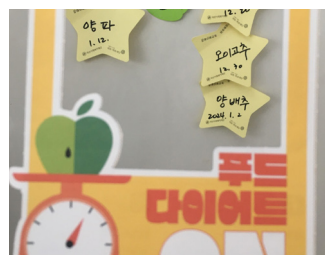
이○재 010-****-3027



연○열 010-****-5421



장○기 010-****-2810



김○현 010-****-2877



김○수 010-****-0743



조○순 010-****-5122

#kwater지방시대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524days | @e_joo000
@sssong_yuyu | @2.yul_ | @jdee3902
@yoonkku_ | @ren_sian | @merryhee
@dltwnlsu_1 | @sunbong63

해피뉴이어! 해피리뉴얼! 행운의 복주머니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디저트 기프티콘 20명
김○정 010-****-3080 임○미 010-****-0465 임○숙 010-****-9074 최○옥 010-****-7752
안○수 010-****-0839 박○현 010-****-2075 윤○훈 010-****-9305 지○미 010-****-9294
이○연 010-****-3937 전○숙 010-****-1645 신○루 010-****-0713 손○규 010-****-3705
이 ○ 010-****-2856 김○경 010-****-8033 임○락 010-****-4985 황○영 010-****-1297
이○현 010-****-1275 김○혜 010-****-8918 박○준 010-****-6323 김○울 010-****-0081

이벤트 선물 발송일 2월 10일경 ※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ON 챌린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동안 알아두면 좋은
저탄소 생활 실천법을 통해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울이 딱지를 모으면 푸짐한 경품이!

저탄소 생활 실천 ON

▲이웃님과 금을 함께 모으세요
..... 접는 선
..... 접는 선
VOL.671 February

1~6월호까지 모든 방울이 딱지를 모은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의 도전이 습관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 ON
38페이지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저탄소 생활 실천을 지속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위의 토퍼를 이용한 실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2월 20일 발송일 2월 29일경



겨울의 끝에 접어든 2월에도 K-water와 #소통하기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새해 인사 방울이가 2024년 청룡의 해를 응원해용 ♥

K-water 마스코트 방울이가
2024년 청룡의 해를 응원해용~♥
새해에는 다 잘될 거예요 🍀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갑진년 #새해 #설날 #인사 #푸른용의해 #용 #청룡](#)



-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겨울 대표 식재료 보관법
예민한 작물, 고구마 보관법부터
굴, 감, 딸기 등 겨울에 알아두면 좋은
겨울 대표 식재료 보관법을
알려드려요!

**호구마.. 아니
방.고.구.마.**
[#고구마 #군고구마 #꿀고구마](#)
[#겨울간식 #간식 #디저트](#)

헌 수면양말의 대변신!
늘어나고 구멍난 헌 수면양말을 활용
해 키링으로 업사이클링 시키는 방법
을 소개합니다!
[#1일1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
[#수면양말 #키링 #업사이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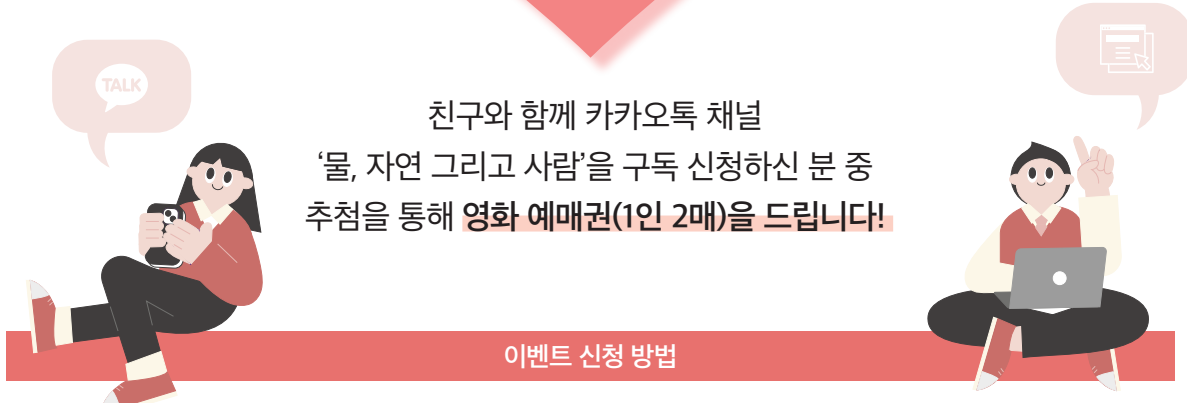
**이 세상 K-직장인
#공감툰**
**EP. 17 청룡의 해 용용빔
용용빔을 맞은
수분이들은 말 끝에
'용'을 붙여야 해용~♥**



구독신청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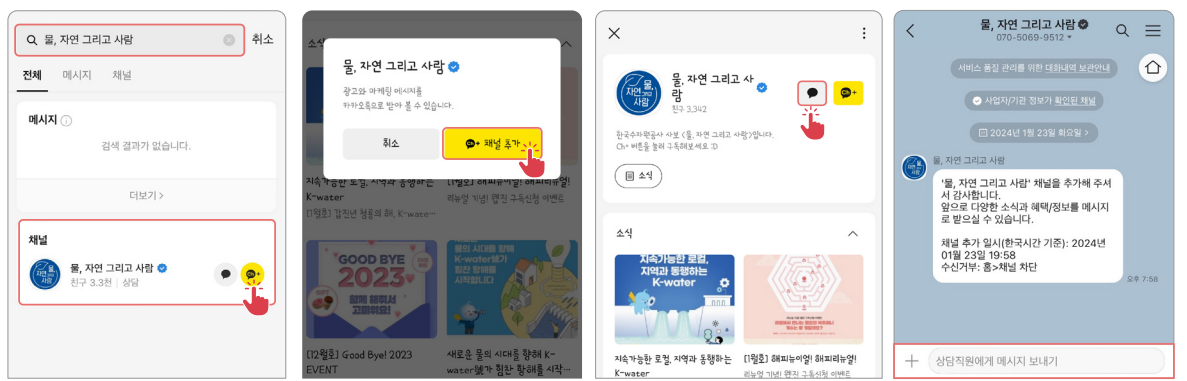
2월이니까 너랑 나랑 둘이서♥

친구와 함께 카카오톡 채널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구독 신청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

-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 2 채널 추가
- 3 1:1 채팅방 클릭
- 4 신청내용 입력 및 전송



이벤트 경품 영화 예매권(1인 2매) 5명
마감일 2월 20일
발송일 2월 29일경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매달 웹진 오픈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 신청자 이름,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함께 신청한 친구 이름
- ※신청한 친구와 본인 모두 확인 후,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